

겨울용품 어떤 것이 있나?



겨울이 되면서 가스히터와 온풍기 등 겨울 난방용품과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전 업체가 선 보인 첨단기능을 가진 실내 난방기기 신제품들을 중심으로 겨울용품에 대해 알아보자.

- 편집자 주 -

난방용품

연통이 없는데도 냄새가 안나는 로터리 히터.

자녀들 장난이나 부주의로 넘어지거나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팬 히터.

올 겨울 난방용품들의 공통점은 냄새 등의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라는 것과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해지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가스캐비닛 히터

캐비닛형 용기에 가스통을 결합하여 사용하며 이동이 편리하다. 가스통만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8평형 규모의 공간에 적합, 소형점포에서 많이 찾는다.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하게 밀거

나 건드리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설계됐다.

위니아사 9평형 가스히터는 가스통을 제외하고 22만 9천원선이며 신일사 8평형은 가스통을 포함, 27만 2천원이다.

● 온풍기

등유로 공기를 데워 온풍을 내뿜는 난방제품.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는 자연배기(CF)방식과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강제급배기(FF)방식으로 나뉜다. FF방식은 바깥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적고 신선하다. 온풍기에 가습기를 부착, 습도까지 조절해 주는 제품이 많이 판매된다.

30~1백평형 규모의 사무실, 당구장, 음식점 등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위니아사 35평형(가습기부착)이 1백30만원이고 삼성 75평형이 1백 44만원.

● 전기라디에이터

작고 깔끔해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판매된다. 색상도 인테리어를 의식한 회색계통이 많은 편. 중앙 공급식 아파트의 보조난방용, 쾌적한 공기를 요하는 수험생방, 병원 입원실, 어린이 방 등에 적합하다.

전기로 라디에이터내 물이나 오일을 가열해 열을 낸다. 냄새가 거의 없고 소음이 없다. 산소결핍과 공기오염도 없는 편. 일부 제품에는 온풍팬이 부착돼 온풍난방도 가능.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게 단점.

독일 파키어사 라디에이터 제품은 온풍팬이 별도로 부착돼 난방효과가 빠르다. 유니아사 6평형이 29만 7천원, 10평형은 36만 3천원.

● 석유난로

완전연소 시스템을 갖춰 과거 제품과는 다르다. 삼성의 로터리 히터는 석유를 원심력으로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시키는 회전무화방식을 채용, 매캐한 석유냄새를 제거했다. 화력세기도 날씨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LG의 로터리히터는 회전무화식버너를 장착하고 자동화력조정장치가 있어 소음도 적다.

30평형이 43만원선.

구입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른 가전제품을 살때와 마찬가지로 난방기기를 구입할 때도 애프터서비스와 흡있는 제품의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제품의 성능 역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히터는 같은 용량이라도 화력 차이에 따라 연료 소비율이 달라진다.

냄새와 유해가스 발생이 많지 않은지도 체크해야 한다. 가정용으로는 열효율이 뛰어나고 유지비용이 저렴한 팬히터가 적당하다. 로터리히터는 사무실이나 업소용으로 전기히터는 전기요금에 많이 드는 만큼 부분적인 난방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안전장치 등 첨단기능을 부착한 제품은 단순기능의 제품보다 5만원 정도 비싸다. 제품 구입때는 실

제 난방이 필요한 면적보다 2~3평 정도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하는게 요령.

히터는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마다 안전장치가 부착돼 있긴 하지만 경사진 곳이나 진동이 심하거나 바람이 부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가구나 커튼 등 가연성 물질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벽걸이형인 경우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옷을 말리는 등 난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특히 불이 켜진 상태에서 운반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불을 끈후 옮긴다.

또 등유외에 다른 석유를 사용하면 안된다. 1주일에 한번 이상 먼지를 제거하고 뒷면의 필터를 청소해 주면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장시간 작동할 경우 한시간에 1~2회 정도 문을 열어 환기해 주는 것도 필수.

기타 겨울 보조용품

실내 생활에서 적당한 습도와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관리상 꼭 필요하다.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건조해지기 쉬운 방안의 습도조절과 공기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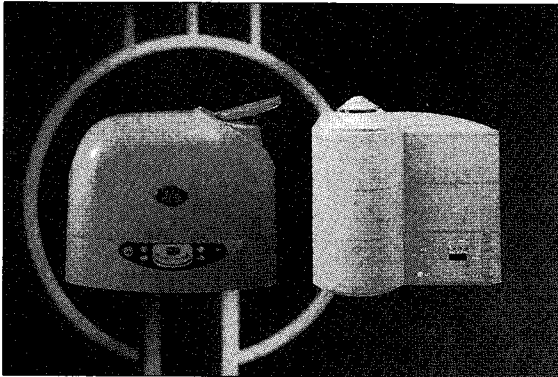
특히 건조한 날씨 속에서 어린이들의 호흡기질환과 성인들의 피부건조를 예방키 위해 사용하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해 알아본다.

■ 가습기

최근 삼성, LG 등 빅3 가전사와 중소기업들은 살균성이 뛰어난 가습기 신제품을 계절에 맞춰 선보이며 『습도와 신선한 공기』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가습기는 우선 가습과정 기능에 따라 초음파식과 가열식으로 나뉘며 일부 가전사 제품은 가습기와 공기청정기가 겸용인 것도 있다.

히터를 이용해 물을 100℃ 정도로 끓여 분사하는



가열식은 초음파식보다 살균기능이 뛰어나지만 분사 준비 시간이 긴 것이 단점이다.

또 물분자를 초음파로 깨뜨려 분사하는 초음파식 제품중에는 살균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외선 램프를 내장한 제품도 있다.

물은 가급적 수돗물을 사용하고 섭씨 40℃ 이상의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초음파식은 항균기능이 강한 제품을, 가열식은 열 발산이 잘 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

● 삼성전자 자외선 살균 가습기(HU-501S 12만 9천원)

가습기면서도 내부에 자외선램프가 장착돼 살균효과가 뛰어나다. 가습능력을 높인 이 제품은 최대 12시간 연속가습이 가능하다.

특히 열탕가습기보다 전기료를 10~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이온방출 공기청정기(SAC-400 19만5천원)는 종이타올 필터를 이용, 한번 교환하면 최대 3년정도 쓸 수 있다.

● LG전자 자외선 가습기(JH-470M 12만 5천원)

신제품으로 자외선 살균기능을 갖추고 본체를 UV코팅해 컴팩트한 고풍택 디자인이 돋보인다.

가열식제품은 특히 하단부에 인공지능센서를 부착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조절할 수 있다.

공기정화기는 8~12평크기(GAE-102S 28만원)용과 보다 큰 가정용(GAE-150S 59만원이 있으며 오염도 감지기능은 물론 무선 리모콘 조정이 가능하다.

● 만도기계 가습기

초음파식(11만 9천원)과 가열식(9만 8천원이 있으며 모두 물탱크내 항균필터가 부착돼 있다. 초음파식은 항균 탈취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세라믹장치가 내장돼 항균 탈취효과가 뛰어나다. 20~40평형 공기정화기(AC-30B1 8만4천원)는 무선리모콘 사용으로 풍향조정이 자유롭다.

● 동양매직 초음파가습기(UHR-053 9만 4천원)

물통 재질을 항균성분인 바이오세라믹으로 했으며, 올해 신상품으로 나온 가열식 가습기(UHT-041 9만8천원)는 주황색과 푸른색이 있어 기능과 색채감이 돋보이는 제품. 또 어린이방의 인테리어와 어울리게 코끼리 외형의 디자인이 특징이다.

■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공기정화방식에 맞춰 전기집진식과 음이온방출식, 필터식 등이 있다. 팬으로 먼지 등을 흡수해 이온화장치를 통과, 오염물질을 내장된 집진극판에 달라붙게 하는 전기집진식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 음이온을 실내에 방출, 먼지를 청정기 내부로 끌어들이는 음이온 방출식 제품도 담배를 피우는 소비자들 많이 찾는 인기제품, 주요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보성전자 전자동 센서 공기청정기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실내의 공기오염상태를 자동으로 감지, 팬의 운전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가정용 10~20평형(59만9천원부터 40~60평형 123만원까지 크기에 따라 기능도 다양하다. 10~20평형에는 실내 공기건조를 차단하는 가습장치와 살균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경원세기 신성공조유닛(SA-251 198만원)

20~30평형으로 가습과 제습기능을 함께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탈취와 음이온 발생기능을 통한 공기세척에서 뛰어나며 습도조절도 용이하다.